



천천히 가야 볼 수 있고,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장미공방

지난 5월 16일,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성인 발달·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장미공방'을 개소했습니다. 장미공방이란 '장애인의 미래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공예, 음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기초학습,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장애, 나이 제한, 정원초과 등 다양한 이유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분들이 지금은 장미공방에서 푹푹 행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예시간에는 멋진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기 위해 처음 붓을 잡아보기도 하고, 조물조물 클레이를 주물러 귀여운 화분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요즘 이용자분들은 장미공방 앞 작은 텃밭을 만들어 열무와 상추를 키우고, 시루에 콩나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싹을 틔울까, 매일 물을 주고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장미공방에서는 그윽한 커피향이 달달한 와플냄새와 고소한 치즈냄새와 함께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모의직업훈련을 위해 난생 처음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보며 바리스타가 된 기분을 느껴보기도 하고, 와플 반죽을 구워 아이스크림, 아몬드 등 예쁘게 데코를 하며 작은 카페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훈련 후에는 직접 내린 커피와 달콤한 와플을 맛보며 커피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느리게,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새싹이 물과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듯 우리 이용자분들도 장미공방에서 배운 것들로 자립을 준비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주안애복지관의 "장미공방"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손뜨개 봉사단 사랑의 뜨개방

추위로 싸맷던 목도리를 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4월, 다시 돌아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뜨개 봉사단 "사랑의 뜨개방"입니다. 손뜨개 봉사단 "사랑의 뜨개방"은 지역 내 어르신과 아동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뜨개작품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고자 모인 봉사단입니다. 손뜨개 실력은 각기 다르지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만은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뜨개방"의 첫 활동은 카네이션 브로치 제작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들이를 떠나는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카네이션을 따서 브로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떠보는 카네이션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서로서로 뜨개방법을 알려주고 배워가며 카네이션을 완성해 어르신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가슴 위에 곱게 핀 카네이션 브로치에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다는 후문이 있었답니다. 이 외에도 겨울이 오면 전달할 목도리, 모자 등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시간과 손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뜨개 솜씨와는 상관없이 외로운 이웃들이 이번 겨울은 우리가 만든 목도리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뜨개 봉사단 "사랑의 뜨개방"은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